



6과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읽을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외울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16절)

Main Idea

그리스도의 대사는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포인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포인트 익히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고
하나님나라를 위한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마음열기

나의 삶에서 바꾸고 싶은데 노력해도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예) 욕을 많이 한다 -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하고 싶다

- 1.
- 2.
- 3.
- 4.
- 5.

성경이야기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러자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장본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죽음당할 위협을 무릎 쓰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지난 시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을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울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는 비록 화도 잘 내고, 거짓말도 잘하고, 죄를 짓고, 나밖에 모르고, 예배를 성의 없이 드릴 때도 많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아름답게 변해요. 또한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늘 함께 하세요.

